

‘팰리세이드·트래버스’ 곧 출시... 대형SUV 전성기 예고

〈현대차〉

〈한국지엠〉

렉스턴·모하비 이어 ‘4파전’ 예상
현대차, 30일 LA오토쇼서 첫 공개
한국지엠, 내년 초로 출시 앞당겨

국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이 좀 더 넓은 실내공간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증가에 힘입어 전성기를 맞고 있다.

쌍용자동차 ‘렉스턴’과 기아자동차 ‘모하비’가 양분했던 시장에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아차 모하비는 렉스턴과 테라칸 이후 국내서 세 번째로 누적판매 10만대를 돌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2008년 첫선을 보인 모하비는 최근까지 약 10년 10개월 동안 내수 시장에서 총 10만982대가 판매됐다. 이는 쌍용차 렉스턴(픽업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 제외 24만842대)과 현대차 테라칸(10만7334대) 이후 처음으로 대형 SUV가 10만대 이상 누적판매 기록을 세운 것이다.



쌍용차 2019 G4 렉스턴.

모하비는 2008년 출시 이후 10년이 넘도록 기본 차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세대변경이나 차명 변경 없이 판매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현대차가 팰리세이드 출시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국내 대형 SUV 시장에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달 30일 열리는 미국 LA오토쇼에서 팰리세이드를 공개한다. 단순히 베라크루즈나 맥스크루즈 후속

모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풀 사이즈 SUV다. 7~8인승 차 가운데 역대 최대급 사이즈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SUV도 편의시설은 1열과 2열에만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팰리세이드는 3열 시트에까지 다양한 안전·편의시설을 적용했다.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와 승객들의 실사용 공간을 고려해 헤드룸과 레그룸 등 동급 최대 수준의 공간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객이 레저·스포츠와 여행, 쇼핑 등을 위해 2열과 3열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작성 혁신적으로 간편화시킨 다양한 시트 배리어이션과 동급 최대 수준의 적재공간을 확보했다.

여기에 한국지엠도 대형 SUV ‘트래버스’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당초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이던 트래버스의 출시를 내년 초로 가능한 앞당겨 팰리세이드와의 직접 경쟁에 나설 전

망이다. 트래버스는 이퀴녹스의 상위 모델로 국내에 들어올 모델은 2세대다. 전장 5189mm, 전폭 1996mm, 전고 1795mm, 휠베이스 3071mm로 앞서 언급한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크다.

업계 관계자는 “모하비와 G4 렉스턴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대차의 베라크루즈 후속 모델인 팰리세이드 출시와 한국지엠의 트래버스까지 합류하면 당분간 국내 대형 SUV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차 2019년형 모하비.



U+ 로드, 서촌마을 골목상권 살렸다 “수험생” 잡아라” 이벤트 평평!

LGU+, 해당지역 평균매출 126% ↑

LG유플러스는 소상공인들과 선보인 ‘U+로드’를 통해 해당지역 상점들의 평균 매출이 기존 대비 126% 증가하고, 고객 수는 137%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U+로드’는 서울종로구 자하문로7길 서촌마을에 있는 상점을 방문하는 LG유플러스 모바일 고객들에게 최대 50% 할인, 1+1 혜택, 경품 이벤트 등을 제공하는 제휴 행사다. 프랜차이즈 중심의 통신사 제휴혜택을 골목상권에 적용한 첫 사례다.

지난달 LG유플러스는 ‘U+로드’를 일주일간 운영해 해당 상권의 평균 유동인구와 상점 매출과 매장 방문고객 수를 기존 대비 증가시켰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오는 25일까지 같은 지역에서 두 번째 ‘U+로드’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 모바일 고객들은 기존보다 2곳이 추가된 총 18곳의 상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하문로7길에서는 남측 초입에 위치한 카페 ‘자연의 길’, 중식당 ‘취천루’를 시작으로 태국음



LG유플러스 직원(왼쪽)과 서촌마을 고로케 판매점 ‘금상고로케’ 이양욱 사장이 ‘U+로드’를 알리고 있다. /LG유플러스

식점 ‘알로이막막’, 분식집 ‘쉬는시간’, 타르트 전문점 ‘통인스윗’, 일본식 라면집 ‘칸다소바’, 일식당 ‘히바치광’, 고로케 판매점 ‘금상고로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케이크 카페 ‘진저그래스맨’, 핫도그집 ‘통소시지인더홀’ 등 상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U+로드’ 혜택은 1인당 하루 세 번 이용할 수 있다. 쿠폰은 ‘U+로드’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으며, 증정된 쿠폰은 한 곳의 매장에서 하루 한번 사용할 수 있다. /김민아 기자 silkni@

LG전자 가전제품 ‘케어솔루션’ 서비스 시작

LG전자가 17일 신개념 가전제품 관리 서비스인 ‘케어솔루션’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케어솔루션은 정기적으로 핵심 부품을 교체하고 위생 관리까지 해주는 등 생활 가전 서비스다.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관리를 맡는다.

LG전자는 케어솔루션이 렌탈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제품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추고 세심하게 가전제품을 관리해준다는 설명이다.

대상 제품은 ▲공기청정기 ▲정수기 ▲건조기 ▲전기레인지 ▲스타일러 ▲안마의자 ▲얼음정수기냉장고 등 7종이다.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최상규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사장은



LG전자는 새로운 가전제품 관리 서비스 ‘케어솔루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LG전자

“가전명가 LG전자의 차별화된 ‘케어솔루션’으로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렌탈서비스’와 ‘유지관리케어업’은 ‘케어솔루션’으로 통합한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전자 갓스물 멤버십·체험행사
LG전자 추첨 통해 노트북 등 제공
전자랜드 태블릿PC 등 62% 할인
하이마트 최대 5만 엘포인트 증정
캐논 매주 1000명에 기프트 카드
소니 배터리·가죽 케이스 등 사은품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잡기 위한 전자업계의 마케팅이 활발하다. 수능이 끝나는 보통 직전 주의 같은 기간보다 스마트폰,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IT 기기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시기다.

본격적으로 20대에 진입해 핵심 소비계층으로 부상하는 세대를 공략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가오는 2019년에 20대가 되는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12월 31일까지 ‘갓스물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삼성전자는 이벤트 기간 동안 ‘갤럭시 노트9’, ‘갤럭시 노트8’, ‘갤럭시 S9·S9+’, ‘갤럭시 S8·S8+’를 구매한 19~21세의 고객을 대상으로 19만9000원 상당의 AKG 헤드폰을 3만명에게, 삼성페이 선불카드 5000원권을 1만명에게 제공한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파티도 기획했다. 삼성전자는 12월에 라뮤끄, 제이블랙

&마리 등 스타 유튜버, 가수들과 600명의 고객이 함께 즐기는 ‘갓스물 라이브 파티’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14일까지 삼성 멤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300명은 동반 1인과 함께 파티에 참석할 수 있다.

기존 갓스물 멤버십 회원을 위한 다양한케어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갓스물 멤버십은 19~21세의 갤럭시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밀레니얼 케어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갓스물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에게 갓스물 삼성1일 체험 행사 참여 기회와 함께 삼성페이 선불카드 5000원(1만명)을 제공한다. 갓스물 삼성 1일 체험 행사는 2019년 초에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갓스물 프로모션은 이제 막 20대가 된 고객들의 힘찬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며 “앞으로도 갤럭시를 즐겨 사용하는 밀레니얼 팬들을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풍성한 혜택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LG V40 씽큐(ThinQ) 모델로 한정해 수험생을 위한 프로모션을 다음달 14일까지 진행한다.

LG V40 씽큐를 구매하는 수능 수험생에게 200GB 마이크로 SD카드를 증정한다. 또 구매자들 중 10명을 추첨해 15인치 LG그램 노트북, LG 톤플러스, 포켓포토 등을 제공한다.

LG V40 씽큐는 국내에 출시된 스마트폰 중 처음으로 후면 3개(망원, 표준, 초광각), 전면 2개(표준, 광각) 등 5개 카메라를 장착했다.

LG전자 안병덕 모바일마케팅담당은 “수험생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공부에 집중하느라 수고한 수험생들이 LG V40 씽큐 함께 친구,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 더 넉넉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전자랜드는 오는 30일까지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트북, 태블릿PC, 데스크탑PC 진열상품 1000대를 최대 62% 할인해 판매한다.

하이마트는 오는 30일까지 노트북, 카메라, 게임기 등을 구매하는 수험생에게 최대 5만 엘포인트를 증정한다.

카메라 업계도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수능을 마친 예비 대학생들이 받고 싶은 선물 목록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카메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사진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문화 속에서 더 좋은 사진을 위한 니즈가 강해지며 카메라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캐논은 미러리스 카메라 EOS M50과 DSLR카메라 EOS 200D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정품 배터리를 추가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또한 이번 이벤트 승인 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1000명에게 최대 10만 원의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드 등을 추첨을 통해 추가 증정한다.

소니는 내년 1월 31일까지 ‘알과 겨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소니 APS-C타입 미러리스 카메라 a6000 시리즈와 a5100 제품 구매 고객들에게 배터리 충전기 키트, 가죽 바디 케이스, 배터리 팩 등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갓스물 수능프로모션 포스터. /삼성전자

▶LG전자는 LG V40 씽큐(ThinQ) 모델을 구매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LG전자